2014 사업보고서

사람을 키우고
나라를 키우는 나눔

CJ도너스캠프

CJ도너스캠프는 “사람을 키우고 나라를 키운다”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아동 · 청소년의 꿈키움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J도너스캠프 사업구조

01 올해도, 고맙습니다
도캠이의 그림일기1
04 우리가 꿈을 꾸는 이유
06 Interview ① 우린 커서 OOO이 될래요 - 이진경, 박주희 학생
08 청소년 꿈 탐험대, 꿈키움캠프
10 미래를 키워요, 꿈키움창의학교
12 또 만나요, 국회 꿈키움 인성캠프
14 꿈키움 : 건강한 성장
도캠이의 그림일기2
18 Interview ② 두 배 더 행복한 만남 -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용희 사무처장
20 Interview ③ 나눔으로 꿈을 응원하다 - 경기관광공사 한상협 관광마케팅 처장
22 IGL이 선물한 특별한 재능기부 - 글로벌리더십연구소와 국제비즈니스코치협회
24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키다리 아저씨의 한마디
26 기부 : 마음을 전하다
도캠이의 그림일기3
30 CJ그룹의 특별한 기부 이야기
32 Interview ④ 아름다운 선순환을 이어가요 - 안정일 대멘토와 이유진 멘토
34 함께 해주세요, 걸스 에듀케이션
36 사랑을 나눠요, 리틀드림 캠페인
38 나눔 : 나눔의 시작은 함께하는 것
40 사진으로 보는 CJ도너스캠프 2014
44 CJ도너스캠프 기부 참여방법 안내

올해도, 고맙습니다

지난 10년을 발판 삼아,
‘사람을 키우고 나라를 키우는 나눔’을 실천하는
CJ도너스캠프가 되겠습니다.

2005년 7월,
‘교육의 기회가 적어 가난이 대물림되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이 땅의 아동 · 청소년들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CJ도너스캠프가 올해 10살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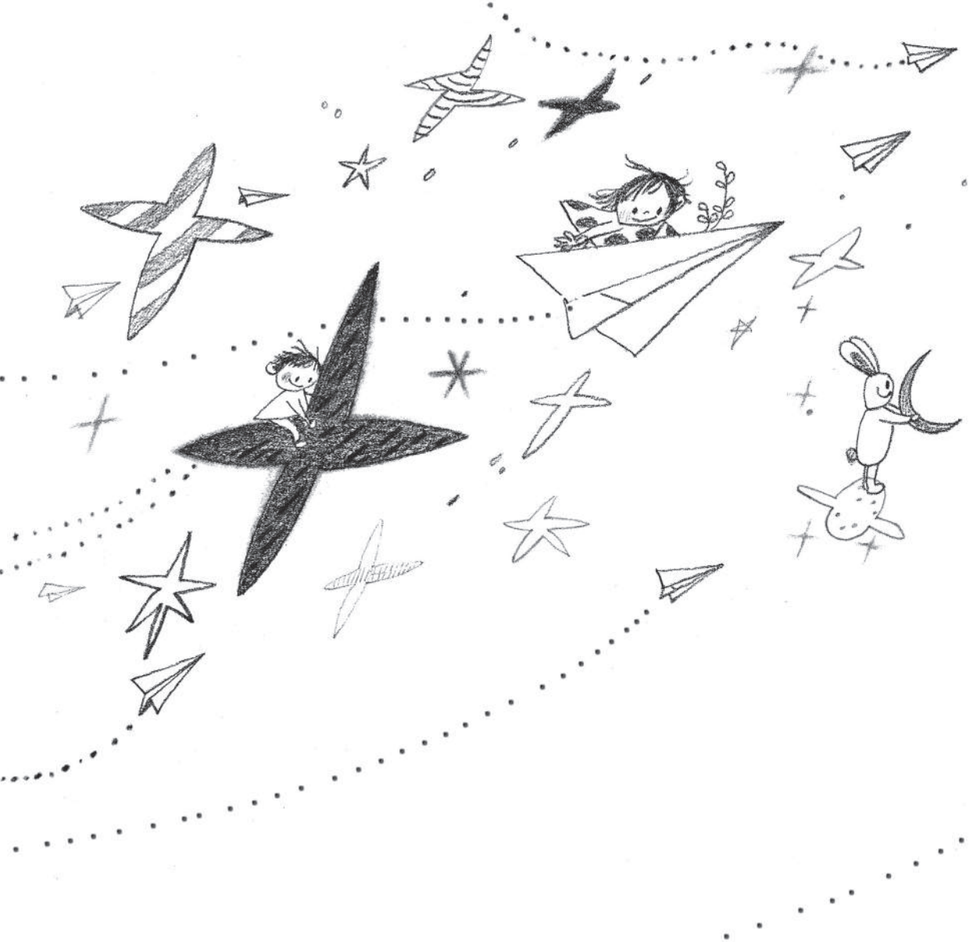
2014년, 그리고 지난 10년 CJ도너스캠프는
기부자님들이 진심으로 전해주시는 나눔과 함께하는 기관들의 든든한
지원 속에서 아동 ·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여,
아이들이 밝은 희망, 건강한 꿈, 바른 마음을 갖고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2014년 CJ도너스캠프 사업보고서를 전해드립니다.

2015년 CJ도너스캠프는 지난 10년을 발판 삼아
앞으로의 10년, 그리고 100년을 바라보며
아동 · 청소년의 동등한 기회,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기부자님들의 즐거운 나눔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기부자님들의 건강,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 CJ도너스캠프 일동 올림



구겨지고
접히는 건
꿈의 성장통이래요

구겨지지 않는 종이가 어디 있을까요?
구겨지고 구겨지다 보면 언젠가는 구겨진 종이도 멋진 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접히지 않는 종이가 어디 있을까요?
접히고 접히다 보면 언젠가는 꿈을 향해 훨훨 날아가는
예쁜 종이비행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2014 CJ도너스캠프 문집」 아동 글 中

우리가 꿈을 꾸는 이유

맘대로 꿈꾸게 해주세요, 네?

나는 13년 동안 가수, 간호사, 운동선수, 의사 등등
많은 꿈을 꾸었는데 지금은 꿈이 없다. 가수는 노래와 춤을 잘해야 하는데
나는 노래를 잘 부르는 편이 아니고 춤도 잘 추는 편이 아니다.
간호사와 의사는 공부를 잘해야 하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안 좋아지고, 운동선수는 괜찮긴 한데
운동 종목 중에서 딱히 할 만한 게 없다.
그래서 지금 나는 꿈이 없다. 하지만 언젠간 꿈이 생길 거라 믿는다.

「2014 CJ도너스캠프 문집」 최다인 학생 글 中

나의 꿈은 계속 바뀐다. 지금은 디자이너다.
디자이너가 되면 내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고,
돈을 안 내도 옷을 마음껏 가질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
참, 나는 세계적인 명품 옷을 만들어도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높은 가격으로 팔진 않을 거다.

「2014 CJ도너스캠프 문집」 정다혜 학생 글 中

CJ도너스캠프 아이들이 쓴 글을 엮은 문집에서 발췌한 꿈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흔히 어른들의 잣대로 요즘 아이들은 '꿈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꿈을 들여다볼 여유를 갖지 못한 건 아닐까요? 다인이만 봐도 지금은 꿈이 없는 상태지만 이전까지 많은 꿈을 꾸어왔고, 무엇보다 다시 꿈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성장기 아이들의 키처럼 잠시 호흡을 고르는 중일 뿐, 다음 꿈을 향해 여전히 자라는 중일 거예요. 어쩌면 지금 디자이너를 꿈꾸는 다혜도 얼마 후엔 또 다른 미래를 그리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꿈을 꾸는 자체가 의미 있는 과정이기 때문이지요.

꿈은 앞으로의 삶을 위한 씨앗과도 같아서 싹이 움틀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듬고 신경 써서 물도 자주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잎을 틔우고 줄기를 뻗어 나가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 것이지요. 문제는 대다수 아이들이 자기가 어떤 싹을 틔우고 싶어 하는지 생각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한다는 사실인데요. 얼마 전에 발표한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 순위는 이러한 현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정환재단이 연세대 염유식 교수 연구팀에 의뢰해 조사한 '2014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단연 꼴찌였습니다. 2009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6년 내리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한 셈이지요. 학교 성적은 1위를 고집하면서 행복지수는 내내 꼴찌여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결과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설문에 임한 초중고생들은 평상시 행복하다고 느낄 때로 '좋아하는 일을 실컷 할 수 있을 때'를 꼽았는데요. 반대로 '성적 압박이 심할 때'와 '학습 부담이 너무 클 때'는 행복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을 때'와 '학습부담, 성적압박'이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비단 이 조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을 가늠해보는 조사는 대개 '우리나라 아이들은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새삼 확인시켜줍니다. 아이들은 좋아하는 일을 실컷 할 때 행복한데, 사교육과 각종 시험, 성적압박 등이 그 자리를 꿰차고 있으니 행복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누구나 행복을 바랍니다.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에 다니길 바라는 것도 결국 나중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이런 바람을 이루기 위한 희생양으로 현재의 행복을 재물 삼는 건 심각한 모순이 아닐까요?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아이들의 삶은 아이들의 것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꿈은 아이들 스스로 꿀 수 있도록, 설령 무수히 변하고 포기하더라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밑그림쯤은 거뜬히 그려낼 수 있도록 가만히 바라보고 응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CJ도너스캠프의 존재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겠지요.

제 꿈은 변덕이 심해요. 정말 자주 바뀌어서 예전
꿈은 벌써 잊어버렸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언제든 대답할 꿈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린이집 선생님이 꿈이지만,
작년까진 사육사가 되고 싶었어요.
동물을 좋아해 동물원에 자주 놀러 갔는데,
그때마다 눈으로만 동물들을 보고 오는 게
아쉽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가 털을 쓰다듬어주고,
먹이도 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동물들과
친하게 지내는 사육사가 부러웠어요.
어떤 동물인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정할 수 있다면
돌고래였으면 좋겠어요. 내 말 한마디에 재주도
부리고 손뼉도 치는 돌고래의 모습을 상상하면
지금도 막 웃음이 나요. 그런데 왜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꿈이 바뀌었느냐고요?
제가 동물도 좋아하지만, 아이들을 정말
예뻐하거든요. 예전에 유치원 다닐 때 원장님이 참
좋은 분이셨어요. 누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고 물어오면 언제나 원장님 얼굴이 떠오를
정도였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에게 화내지
않는 원장님 같은 선생님이 된다면,
그게 바로 제가 아는 가장 멋진 어른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장담할 순 없지만 아마도
어린이집 선생님이 저의 마지막 꿈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과 달리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작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친구들에게 거친 표현을 할 때도 잦았는데,
아이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친절한 선생님이 되어야 하니까
친구들에게 양보도 많이 하고요.
이제 열다섯 살이니까 하나하나
고쳐나가다 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될 수 있겠지요?

이진경 (15세)

“아이들에게 화내지 않는 어른이 될래요”

예전엔 가정의학과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소아과는 아이들만 진료받을 수 있고
내과는 배 아픈 사람들만 갈 수 있는데,
가정의학과는 아픈 사람이라면 누구나 진찰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참 공평해 보였어요.
아픈 사람은 당장 치료받는 게 중요하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병원 말고
일단 다 봐주는 의사가 멋져 보였어요.
그다음 꿈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요.
학교 끝나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선생님
놀이를 즐겨했어요. 집에 있던 인형들을 학생
삼아 그날 배운 내용을 조곤조곤 설명하다 보면
어느새 엄마가 돌아오실 시간이 되어 있는 게
좋았어요. 가르치는 재미도 컸고요.
그래서 나중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의사든, 선생님이든 공부를
잘해야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되고 싶어도
성적을 잘 받아야 하니까 그 꿈을 슬그머니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이제 내년이면 고등학생이
되니까 얼마 전부터 좀 더 진지하게 꿈을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찾게 된 꿈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되고 싶은 이유는 힘을
갖고 싶어서예요. 공무원이 되어 억울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병풍 같은 역할을 하면 참 보람 있을
것 같아요. 책상 앞에 앉아 온종일 컴퓨터와
서류만 만지는 공무원 말고, 이왕이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공무원이고 싶어요. 그들의 말을
중간에 자르지 않고 끝까지 다 들어주고,
그런 다음 그들이 원하는 답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는 공무원. 제가 그런 어른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10년 뒤 그런 어른이 되어
있을 주희에게 열여섯 살 주희가 미리 인사를
건네고 싶어요. “축하해. 그리고 고마워!”

박주희 (16세)

“10년 후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어른이 될게요”

청소년 꿈 탐험대, 꿈키움캠프

내가 진짜 하고픈 것, 살짝 알려줄까요?

CJ도너스캠프의 꿈키움캠프는 청소년들이 '진짜 하고 싶은 것', '진짜 되고 싶은 것'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보는 미래진로탐색 프로그램입니다. 꿈키움캠프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2박 3일 동안 합숙하며 적성검사와 진로 탐색, 직업체험 등을 통해 자신의 구체적인 미래를 스스로 설계해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외부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대학생 멘토와 6대 1로 조를 편성해 다양한 꿈과 직업 세계를 탐색함으로써 자신이 정말 하고 싶고, 되고 싶은 미래의 모습을 미리 그려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나 이해하기(1일 차)', '직업체험(2일 차)', '진로계획 수립(3일 차)'이라는 큰 틀 아래 사전 진로검사 및 해석, 직업 가치관 세우기, 자신이 꿈꾸는 직업과 연계한 사업공모전, 아이디어 뱅크, 직업체험활동 등 다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꿈키움캠프는 아이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자신의 꿈을 발굴'한다는 점에서 여느 진로탐색캠프와 뚜렷하게 선을 긋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꿈을 들여다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데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까닭입니다.

CJ도너스캠프가 지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 꿈키움캠프를 통해 지금까지 총 4,000여 명의 아동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원하는 꿈을 찾아 미래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CJ도너스캠프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더불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의 활발한 연계를 통해 꿈키움캠프를 확대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미래를 키워요, 꿈키움창의학교

‘건강한 성장’을 돕는 선생님을 만났어요

CJ도너스캠프의 ‘건강한 성장’은 꿈과 인성의 조화로운 성장을 의미합니다. 꿈키움창의학교는 CJ그룹의 식품·문화사업 인프라를 활용해 청소년들의 꿈과 인성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CJ도너스캠프의 대표적 멘토링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대멘토(외부 전문가, CJ 임직원), 멘토(해당 전공 대학생), 멘티(공부방 중학생)의 체계적 시스템 아래 3~6개월간 장기적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적성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스스로 꿈을 설계하는 한편 타인과 소통하고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게 합니다.

꿈키움창의학교에서는 이외에도 문화체험, 전문가 특강, 창작활동과 같이 꿈을 키우는 활동과 더불어 사회적 리더로 활동 중인 명사들의 인성특강, 교육과정 중에 한번은 참여하게 되는 자원봉사활동, 소통과 협력을 배울 수 있는 팀워크 미션 등의 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직업교육을 떠나 청소년들의 꿈과 마음이 한 뼘 자라나길 바라는 CJ도너스캠프와 멘토로 활동한 전문가들의 바람을 담은 것으로, 꿈키움창의학교가 꿈꾸는 ‘건강한 성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꿈키움창의학교는 2013년 22개 기관 144명의 중학생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26개 기관 153명의 중학생이 참여, 2년간 약 300명의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요리, 음악, 공연, 방송쇼핑 총 4대 부문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위해 CJ푸드빌, CJ E&M, CJ오쇼핑 임직원과 대학 교수진 26명이 전문가 대멘토로 나섰으며, 유관 분야 전공 대학생 26명이 기관별 멘토가 되어 청소년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 6개월간의 멘토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5년 2월 참여 학생을 위한 Dream Stage를 끝으로 꿈을 향한 여정을 일단락하고 다음 꿈키움창의학교를 기약하게 됩니다.

또 만나요, 국회 꿈키움 인성캠프

인성 튼튼, 미래 탄탄
오늘도 특별한 꿈을 꾸었어요

지난여름, 문턱이 높게만 느껴졌던 국회가 중학생들의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이 주최하고 CJ도너스캠프가 주관한 '제3회 국회 꿈키움 인성캠프'가 2박 3일간에 걸쳐 열린 까닭입니다. 국회에서 진행한 이번 인성캠프는 2013년 2월 범국가적 청소년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여야 국회의원 30여 명이 인성교육 중심의 교육정책을 통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을 결성한 데서 비롯하였습니다. 이후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모델을 만들고자 국회 인성캠프를 추진하게 된 것으로, 그동안 CJ도너스캠프가 아동 청소년들에게 다채로운 인성교육을 펼쳐온 점을 인정해 2013년 가을에 이어 '제3회 국회 꿈키움 인성캠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팔로워십과 존중, 그리고 스마일 키퍼스 워크숍 국회 꿈키움 인성캠프는 '팔로워십'과 '존중'을 배울 수 있는 강연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글로벌 사회 속 미래인재상에 대한 주제로 진행한 강연에 이어진 비폭력 대화법 프로그램에서는 감정제어를 통한 소통방법과 사회성 기술 함양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요. 놀이로 비폭력 대화 방법을 배우는 '스마일 키퍼스 워크숍(smile keepers workshop)'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어떻게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진심 어린 제안, 모의국회 국회와 잘 어울리는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도 진행되었습니다. 국회의원처럼 청소년들이 직접 법률안을 제안하고 표결처리하는 '모의국회' 체험이 그것인데요. 각자 국회의원 역할을 맡아 법안을 제안하고 토론과 표결을 체험함으로써 소통방법과 적극성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날 아이들이 제안한 '과제물 대행업체 규제에 대한 법률안',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 '학교 내 학생의 정보통신기기 사용제한에 대한 법률안' 등 3개 법안은 이후 실제 법안 체결을 위해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 소속 국회의원을 통해 제안될 예정입니다.

국회 꿈키움 인성캠프의 메인, 창의인성UCC 제작 국회 꿈키움 인성캠프는 청소년들이 인성의 주요 덕목들을 직접 문화 콘텐츠로 창작해보게 하는 '창의인성UCC 제작'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총 16개 팀으로 나누어 사전에 주어진 음악 MR 중 한 곡을 선택해 '꿈', '인성', '사랑' 등의 메시지를 담은 노랫말을 붙여 함께 부르는 공익광고 형태의 UCC를 제작했는데요. 경연대회를 통해 국회의장상, 교육부장관상, 문화체육부장관상, 여성가족부장관상 등이 수여됐으며, 제작된 UCC는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한 홍보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특별한 장소에서 빚은 특별한 추억 국회에서 열린 만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을 비롯해 국빈 접견용 한옥인 사랑재와 국회의원회관 전 시설이 캠프장으로 변신했던 국회 꿈키움 인성캠프. 그중에서도 신축된 의원회관 3층 로비에 '인성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차려진 텐트 숙박동은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는데요. 국회 꿈키움 인성캠프가 청소년들에게 '인성', '꿈', '리더십' 등을 배우는 값진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꿈키움 : 건강한 성장

올해도 CJ도너스캠프가 가는 곳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른의 잣대가 아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게 해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설계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운 덕분인데요.
공부방에서 직접 제안한 교육제안서를 통해 단순한 학업지원에 그치지 않고 문화체험, 몸튼튼, 마음튼튼 등 아이들의 인성 함양과 오감을 깨울 수 있는 풍성한 결실을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꿈키움캠프와 꿈키움창의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향해 한발 더 내디딜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꿈의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올해도 아이들의 건강한 꿈터가 된 CJ도너스캠프는 앞으로도 CJ그룹의 다양한 인프라와 더불어 우리 아이들의 꿈을 함께 찾고 함께 키우며 함께 성장해가겠습니다.

※ 공부방 :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보육원, 학교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375곳 / 4,424곳

2014년 신규 공부방 / 전체 공부방 수

올해 CJ도너스캠프와 새롭게 인연을 맺은 공부방.
아이들이 저마다 원하는 꿈을 찾아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공부방과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1,260건

2014 교육제안서

배움에 대한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오감과 인성을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제안서라면 무엇이든 반갑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꿈을 찾았어요

25,139명

2014 지원 아동 수

올해도 전국 방방곡곡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CJ도너스캠프를 통해 꿈을 찾은 아이들 숫자만큼 우리의
미래도 희망으로 가득 차겠지요?

나만의 어엿한 꿈이 생겼어요

154명 / 1,093명

2014 꿈키움캠프 / 꿈키움창의학교 참여자

CJ도너스캠프는 막연하게, 혹은 구호로만 강조하는 꿈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아이들 스스로 꿈을 찾고
키울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 꿈은 누군가의 꿈을 응원해주는 거예요

내가 책이라면 영우에겐 독일을 보여주고 싶어요.
영우가 좋아하는 독일 축구팀을 만나 함께 운동장에서 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책이라면 온종일 진수를 웃게 해주고 싶어요.
나중에 개그맨이 되려면 지금부터 웃음을 저금해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책이라면 누구에게라도 다가가 종알종알 말을 걸고 싶어요.
온종일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저를 불러주세요.

「2014 CJ도너스캠프 문집」 아동 글 中

Interview ② CJ도너스캠프와 함께한 제3회 전남나눔캠페인

“전라남도 아이들이 두 배 더 행복해졌어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용희 사무처장

연말을 앞둔 12월 29일 이낙연 전남도지사, 허정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민희경 CJ CSV경영실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에 걸쳐 벌인 전남나눔캠페인 모금액 전달식을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이번 제3회 전남나눔캠페인은 당초에 목표했던 2억 원을 훨씬 웃도는 3억 1,000여만 원의 모금액을 거둬들여 더욱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되었지요.

“전라남도 내 아동 ·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고자 도민들을 대상으로 2011년, 2013년에 이어 세 번째로 모금활동을 벌였는데요. 제2회부터 특히, CJ도너스캠프가 도민이 낸 기부금 액수와 같은 금액을 매칭하면서 모금액의 규모는 물론이고 아이들의 행복지수까지 눈에 띄게 올라가는 게 참 좋았습니다. 전남모금회도 캠페인 취지에 공감하여 참여하게 되었고요.”

전남도민이 1만 원을 기부하면 CJ도너스캠프에서 1만 원을 매칭해 2배인 2만 원의 기부 효과를 발휘하여 이번 전남나눔캠페인의 모금액이 무려 7억 4,000여만 원에 이르렀다고 전하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용희 사무처장은 이중 5억 4,000만 원을 도내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등 400여 개 아동복지시설 환경 개선비, 교육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가 지원한 2억 원은 작년에 이어 이번 겨울방학 동안 아동 · 청소년의 진로 탐색을 위해 CJ도너스캠프가 진행하는 꿈키움캠프에 쓰이게 된다고 덧붙였지요.

김용희 사무처장이 몸담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998년도에 설립된 국내 유일 법정 모금 및 배분 전문기관입니다. 전남나눔캠페인을 통해 도민들의 정성 어린 기부금을 모아 도내 아이들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어 뿌듯하다는 그는 CJ도너스캠프가 전남나눔캠페인의 가치를 한층 빛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남은 지역 특성상 섬을 포함해 소외된 농어촌지역이 유독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 아이들은 교육의 기회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CJ도너스캠프의 꿈키움캠프를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탐색해보고 다양한 직업체험활동을 통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계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폭넓은 나눔 활동을 지속해온 CJ가 직접 운영하기에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까지 매우 높다는 김용희 사무처장은 민과 관 그리고 기업이 한마음으로 협력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그가 CJ도너스캠프와의 지속적인 협력은 물론 더 많은 기업과 비영리재단들의 동참을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한상협 처장과 경기관광공사 직원들

Interview ③ 경기관광공사와 CJ도너스캠프의 특별한 여름

“여행나눔, 문화나눔 경기관광공사가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방법이지요”

경기관광공사 한상협 관광마케팅 처장

“‘꿈키움 공모전’에서 초등학생 팀이 냈던 아이디어가 생각나요. 영화 〈설국열차〉처럼 칸마다 다른 콘셉트로 경기도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체험거리를 담아낸 ‘경기도열차’를 만들어 지방에서 경기도로 가는 동안 정보도 얻고 체험도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였는데요. 아이들의 놀라운 상상력과 창의력에 감동해 저도 모르게 무릎을 탁 쳤었죠.”

경기관광공사 한상협 처장에게 CJ도너스캠프는 금세 강렬했던 기억 한 자락을 불러냈습니다. 지난여름, 경기관광공사는 CJ도너스캠프와 함께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에서 1박 2일 동안 ‘꿈키움 문화체험 캠프’를 열었습니다. 경기도 내 7개 지역에서 모인 100여 명의 초·중학생과 함께한 자리. 영어 뮤지컬, 쿠킹클래스, 비누 만들기, 아쿠아리움 관람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함께 ‘꿈키움 공모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파주의 밤하늘에 박힌 별들보다 더 반짝거리는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지요. 그중 하나가 한 처장을 지금껏 두근거리게 하는 ‘경기도열차’입니다. 물론 그날의 감동이 그 순간에만 박제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쿠킹클래스 때는 체험을 마친 한 아이가 한쪽에서 자기가 만든 쿠키를 포장하고 있더라고요. 뭐 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집에 있는 엄마에게 갖다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순간, 울컥하면서 아이의 마음에 가슴이 뜨거워지더군요.”

또래와 어울려 철없이 즐기다 가기에도 모자랄 시간에 엄마를 생각하며 자그마한 손으로 쿠키를 싸는 모습을 보며 그는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좀 더 많이 만들어줘야겠단 생각을 했다고 되뇝니다.
그동안 경기관광공사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프로그램임을 인증받은 도내 관광 관련 시설을 아이들의 안전한 체험거리로 제공해왔습니다. 경기관광공사의 사회공헌활동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대상인지 짐작게 하는 대목. CJ도너스캠프와의 인연 또한 아이들을 사이에 두고 맺어졌습니다. 아이들의 꿈을 응원한다는 CJ도너스캠프의 취지에 경기관광공사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면서 ‘꿈키움 문화체험 캠프’ 같은 특별한 시간과 추억이 빚어진 것이지요.

“경기관광공사 혼자 하면 하나의 성과가 나오지만,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CJ도너스캠프와 함께하면 무한대의 시너지가 만들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아이들에게 오늘의 체험이 훗날 어느 정도의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몸집을 키우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꿈을 그려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멍석을 깔아주고 싶었어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경기관광공사의 사회공헌활동은 ‘아이들은 참 소중하다’는 생각에서 싹틉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섣불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지 않고, 아이 스스로 찾은 꿈을 북돋워 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해왔습니다. CJ도너스캠프와의 만남이 반가웠던 건 바로 이 때문. 아이들의 생각과 꿈에 관한 한 CJ도너스캠프와 이심전심임을 확인한 만큼 경기관광공사는 앞으로도 여행나눔, 문화나눔을 통해 아이들과 더 자주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IGL(글로벌리더십연구소)이 선물한 특별한 재능기부

공부방 선생님들의 선생님이 나타났어요

지역아동센터(공부방)는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학교이자 집입니다. 그러니 그곳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학습능력을 길러주는 일뿐만 아니라 인성 성장과 꿈키움에 대한 걱정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누군가 속 시원히 답을 주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공부방 선생님들의 마음을 읽은 CJ도너스캠프가 이번에는 아이들이 아닌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교사 Social Coaching Training Program(교사 코치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그것입니다. 교사 코치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글로벌리더십연구소(IGL)와 국제비즈니스코치협회(IBCA)의 재능기부를 통해 공부방 선생님들에게 '코치 기법'을 전수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즉, 총 5회에 걸친 전문가 강의를 통해 효과적인 소통방법과 감정에 대한 이해, 동기부여 기술 등 코칭 노하우를 습득함으로써 아이들의 건전한 꿈과 바른 인성 함양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총 9명의 공부방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1차 교사 코치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재능기부에 나선 글로벌리더십연구소 이희선 교수님(서강대 겸임교수)을 포함해 각 분야 전문가의 강의로 매시간 알차게 채워졌습니다. 덕분에 지난 10월 24일 첫 수업을 시작해 12월 19일 마지막 수업과 더불어 수료식을 마친 공부방 선생님들은 국제비즈니스코치협회 명의 SCPT 수료증은 물론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교육에 자신감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익숙한 '교육의 자리'가 아닌 '배움의 자리'에서 공부방 선생님의 역할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다는 공부방 선생님들. 앞으로도 CJ도너스캠프는 글로벌리더십연구소(IGL)와 국제비즈니스코치협회(IBCA)의 든든한 재능기부와 함께 공부방 선생님들의 열정이 더욱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키다리 아저씨의 한마디

CJ도너스캠프 아이들에게 보내는 기부자님들의 '꿈'에 대한 따뜻한 한마디를 모았습니다.

선장의 꿈을 너희와 나누고 싶어.
너희를 배에 태우고 바다처럼 큰 꿈을 향해
끝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고 싶구나. **신성모 기부자님**

아직도 꿈을 찾는 중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열심히 꿈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야. 아이도 어른도 꿈이 없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꼭 만나게 되어 있거든. **신상총 기부자님**

꿈은 그 자체로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이야. 꿈을 갖고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노력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조금씩 성장하게 되니까. 내가 만든 음식을
먹고 누군가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접시에 꿈과
맛을 담아내는 요리사가 된 나처럼 말이야. **박보미 기부자님**

아저씨는 어릴 때 매우 가난했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원하는 세상을 만날 수 있었어.
그래서 세상은 바라보는 대로 다가온다는 걸 말해줄 수 있어. **변준혁 기부자님**

미래의 희망들아. 즐겁고 행복하고 씩씩한 생활로
건강한 체력을 키워나가길 응원할게. **황인식 기부자님**

선생님이 되어 내 것을 누군가에서 나눠준다는 건 정말 행복하고 훌륭한 일이야.
비록 나는 이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누군가는 꼭 이런 선생님이 되길. **심순열 기부자님**

꿈을 꾼다는 건 정말 값진 일이야. 만약 그 꿈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도 그 꿈의 가치만큼 얼마든지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거든. **허성원 기부자님**

꿈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 주변의 사소한 것에서도 얼마든지 꿈을 찾을 수 있어.
다만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 같은 사람이 되는 꿈을 꾸길. **김종원 기부자님**

끝이 보이지 않는 하늘처럼 세상은 드넓단다.
그러니 마음껏 큰 꿈을 펼쳐도 괜찮아. **박경희 기부자님**

사람은 한순간에 어른이 되진 않아. 꿈을 꾸는 대로,
또 꿈을 위해 노력하는 대로 된단다. 그러니 비록 작고 어리지만
큰 꿈을 갖고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라. **오경웅 기부자님**

애니메이션 작가처럼 마음대로 꿈꾸렴. 스케치북에
담지 못할 만큼 큰 꿈을 그리렴. **신지훈 기부자님**

'꿈에 다가가는 것은 큰 것을 어렵게 이루는 건 아닐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이 생기면 꿈에 다가가는 것이다.' 어릴 적 일기장에 써놓은 내용인데,
하고 싶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김덕경 기부자님**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것도, 잘하는 걸 할 수
없는 것도 지금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열 번 스무 번 마음에
새긴다면 반드시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장세민 기부자님**

기부 : 마음을 전하다

사람들이 선뜻 기부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나 한 사람의 기부로, 혹은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과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올 한 해 CJ도너스캠프와 함께한 기부자와 기부금의 숫자는 마음과
마음이 모여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걸스 에듀케이션 캠페인은 CJ그룹만의 밝고 즐거운
기부문화로 공감대를 넓혔는데요.
아시아 최고의 음악축제 '2014 MAMA'의 열기만큼 뜨거웠던
걸스 에듀케이션 캠페인에 대한 스타들과 전 세계 음악팬들의 관심과
동참은 지구 반대편 소녀들의 삶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CJ도너스캠프와 함께한 기부는 기적의 예고편입니다. 아동 · 청소년들이
스스로 원하는 꿈을 찾아 지금까지와는 다른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까닭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진짜 꿈을 찾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CJ도너스캠프와 함께해주세요.

소녀들의 미래가 이만큼 환해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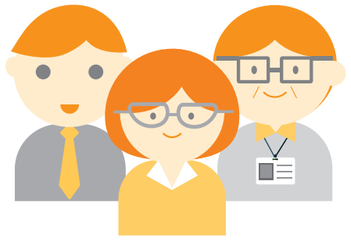
2억 1천여만 원

걸스 에듀케이션 모금액

아시아 최고의 음악축제인 '2014 MAMA'를 시작으로 스타들의
끊임없는 나눔이 빚어낸 온정이 지구 반대편 소녀들에게 희망을 지폈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6,899명



기부참여자

경기는 얼어붙고 물가는 오르고 사람들은 삭막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CJ도너스캠프에 내민 기부자들의 손길과 그 마음은 올 한 해도 참 따뜻했습니다.

착한 마음들이 차곡차곡 쌓였어요

1,979,671,941원

2014 온라인참여 기부금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좀 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마음들이 있어 든든합니다.

민들레 홀씨처럼 날아
꽃을 피우고 싶어요

친구들과 뛰어놀던 학교 운동장 한쪽이 작년 봄엔 꽃밭이 되었어요.
가꿈 공을 주우러 가보면 이름 모를 풀만 보였는데,
작년 봄엔 노랗고 하얀 민들레꽃이 곳곳에 피어났어요.
아마도 바람이 어디선가 민들레 홀씨를 데려와 운동장에 뿌렸나 봐요.
예전에는 공을 주우러 가는 게 싫었는데, 꽃밭이 생긴 후로는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민들레 홀씨처럼 내 마음도 여러 곳에 나누면
제각각 어여쁜 꽃이 되어 피어나겠지요?

「2014 CJ도너스캠프 문집」 아동 글 中

CJ그룹의 특별한 기부 이야기

CJ 덕분에 올 한 해도 따뜻했어요!

CJ도너스캠프의 든든한 후원자인 CJ그룹이 2014년에도 'CJ그룹 사랑의 김장 나눔 한마당'으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월동 준비의 필수인 '김장'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기도 한데요. 이에 유네스코에서는 김장을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Kimjang, making and sharing Kimchi)'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장은 단순한 김치 담그기를 넘어 품앗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나누는 우리 고유의 문화입니다.

김장 봉사 활동은 '우리 공부방 아이들에게 김장김치를 지원해주면 더 따뜻하고 더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겠지?'라는 소박한 바람에서 시작되어 8년째 이어온 CJ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올겨울엔 10여 개 주요 계열사 대표와 임직원 1,200명뿐 아니라 주한미군, 한국 거주 외국인 유학생, CJ도너스캠프 공부방 아이들과 선생님, 기부자님 등 800여 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는 기존 임직원 중심으로 매년 진행해온 김장나눔 행사의 참여 대상을 넓혀, 전통 한식 문화를 익히고 나눔도 실천하는 등 그 의미와 규모를 확대한 것입니다.

즐거운 나눔을 추구하는 CJ그룹인 만큼 행사장 분위기도 그 어느 해보다 뜨거웠는데요. 봉사에 참여한 어린이와 외국인들을 위한 공연, 영화 등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큰 호응을 얻은 가운데, 가수 하이니 씨의 축하공연과 함께 본격적인 김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봉사자 전원이 위생 머리 캡과 장갑, 앞치마, 마스크까지 완전무장한 채 김치 작업대, 물 짜기 작업대, 포장대 등 총 3개 팀으로 나누어 김장김치 만들기에 나선 것이지요.

그 결과, 이틀에 걸쳐 6만여 포기, 120여 톤 분량의 김장김치가 만들어졌는데요. CJ그룹은 여기에 2만 포기를 더한 총 8만 포기(약 160톤, 역대 최대 규모)를 CJ도너스캠프가 후원하는 전국 2,000여 개 공부방 및 그룹홈 아동 5만 6,000여 명과 여러 복지시설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CJ그룹은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을 위해 사고 이튿날인 4월 17일부터 범국민대책본부가 공식해체하고 철수를 결정한 11월 19일까지 약 200일 동안 식품, 의약품, 무료급식, 택배서비스 등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룹 임직원 900여 명이 총 4만여 시간을 진도에서 함께하며 아픔을 나눴습니다.

CJ그룹 주요 계열사의 특별한 나눔활동

CJ제일제당	푸드뱅크 '희망나눔 선물세트 조립'
CJ푸드빌	뚜레쥬르 '착한빵' 기부, 꿈키움창의학교 '요리 부문'
CJ프레시웨이	중구지역 지역아동센터 쿠킹클래스
CJ오쇼핑	꿈키움창의학교 '방송쇼핑 부문', 농산어촌 청소년 진로 멘토링, 모금 · 기부방송
CJ대한통운	지역아동센터 문화체험교실
CJ올리브네트웍스	유네스코 '걸스 에듀케이션' 연계 기부, 공부방 정기 후원 및 봉사활동
CJ CGV	토토의 작업실, 객석나눔
CJ E&M	꿈키움창의학교 '공연 부문, 음악 부문', 방송 문자 수익금 기부(<슈퍼스타K>, <댄싱9> 등), 중국 K-POP음악교실, 토토의 작업실, 객석나눔

Interview ④ 꿈키움창의학교로 아름다운 선순환을 이어가요

“아이들에게 음악으로 소통하는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어요” 이유진 멘토
“그게 바로 우리, 대멘토와 멘토의 역할이지요” 안정일 대멘토

이유진 멘토 : 2014년 꿈키움창의학교도 얼마 뒤면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음악 부문 대멘토로서 감회가 어떠신지요?

안정일 대멘토 : 작년 꿈키움창의학교 경연대회 심사를 맡은 게 인연이 되어 대멘토에 장까지 맡게 되었는데, 멘토링을 진행할 전국 10개 기관(중학교)을 일일이 찾아가 지원 학생들을 인터뷰하면서 생각한 건 딱 하나였어. 음악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단 바람. 그래서 획일화된 프로그램을 각 학교에 대입하기보단 아이들에 맞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고 그에 맞는 대학생 멘토를 붙였지. 논산여중만 해도 처음 멘토링을 지원할 때부터 아이들이 춤을 배우길 원해서 춤에 남다른 소질이 있는 유진 멘토가 담당하게 된 건데, 유진 멘토에게도 색다른 경험이 되었으리라 생각해.

이유진 멘토 : 처음엔 춤을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였어요. 그저 춤만 가르쳐주고 오면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춤에 대한 아이들의 의지와 열정을 살갗으로 느끼면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단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 지난 빼빼로데이 때 작은 선물과 함께 아이들이 써준 손편지를 읽은 후 훨씬 가까운 사이로 발전했죠.

안정일 대멘토 : 내게도 몇몇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중 논산여중에서 있었던 일이 가장 큰 감동으로 남아 있어. 처음 논산여중 학생들이 꿈키움창의학교에 지원할 때 리더를 맡은 아이가 있었어. 오디션 때부터 눈에 띄던 학생이었는데, 알고 보니 부모님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상태였어. 그래서 내가 논산여중에 인터뷰 갔을 땐 부모님의 반대로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 사실 그 날 하루에만 세 학교를 방문하느라 일정이 빠듯했지만, 그 학생에게 꿈키움을 약속했던 기억이 떠올라 부모님을 만나 설득했고, 다행히 허락을 받아 멘토링을 해줄 수 있게 되었지.

이유진 멘토 : 듣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춤 실력이 늘어가는 것도 뿌듯했지만 갈수록 아이들 사이가 돈돈해지는 모습에서도 큰 감동을 받았어요. 처음엔 별로 친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춤을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배려하고 맞춰나가는 모습이 멘토로서 보람을 갖게 했죠. 음악 부문을 총괄하신 대멘토님은 언제 보람을 느끼셨나요?

안정일 대멘토 : 꿈키움창의학교에 발을 담근 것부터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꼽자면 올해는 작년과 달리 아이들을 가급적 자주 공연에 초대하려고 애썼어. 한창 많은 걸 보고 듣고 경험해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공연 관람 기회가 일 년에 고작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다는 얘기를 듣고 시도했는데,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접한 아이들의 만족도가 매우 커서 보람이 남달랐지.

이유진 멘토 : 처음으로 멘토링에 참여하면서 멘토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부족하나마 멘토로 활동하면서 좀 더 아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했고요. 제 멘토인 대멘토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되새기게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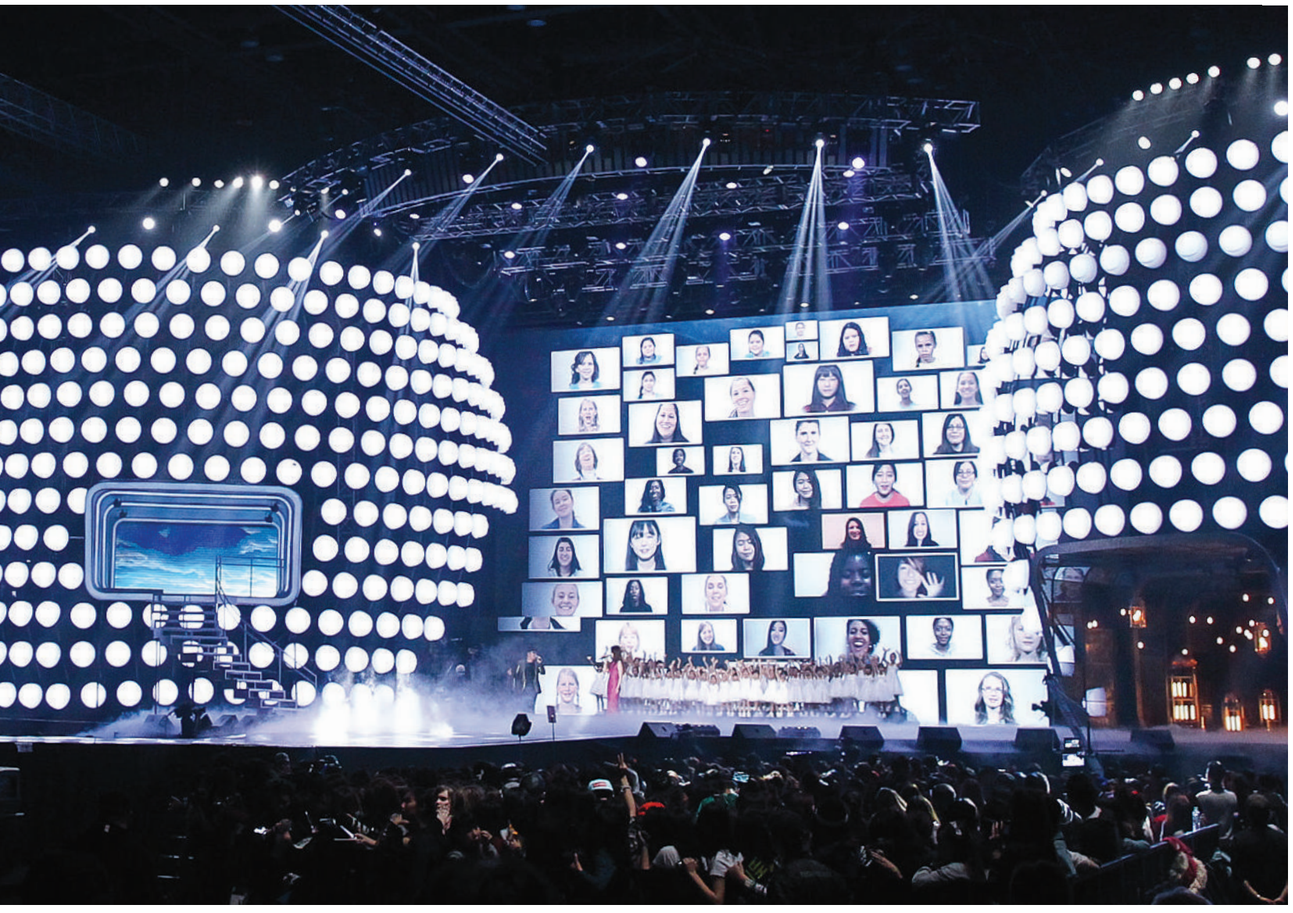
안정일 대멘토 : 솔직히 꿈키움창의학교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학생 멘토라고 생각해. 가까이에서 아이들의 생각을 읽어내고 화두를 제시하는 사람이 대학생 멘토인 까닭이지. 대멘토는 그런 중요한 소임을 맡은 대학생 멘토에게 자칫 부족할 수 있는 디테일에 경험을 얹어주고, 꿈키움창의학교의 큰 방향성이 현실에 휘둘리지 않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랄까.

이유진 멘토 : 대멘토님의 든든한 지원으로 2014년 꿈키움창의학교도 참여한 아이들에게 건강한 성장을 선물할 거라 확신해요. 개인적으로는 ‘꿈을 꾸고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법을 알아가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것’이 건강한 성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끝으로, 대멘토님은 꿈키움창의학교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세요?

안정일 대멘토 : 유진 멘토도 공감하겠지만, 음악을 통해 꿈꿔본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잘 알잖아. 같은 맥락에서 꿈키움창의학교에서 음악을 재료로 폭넓은 경험을 한 아이들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훨씬 유연하게 살아갈 거란 믿음이 있어. 그런 만큼 꿈키움창의학교에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런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 물론 그러자면 우리 같은 멘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할 텐데, 앞으로도 지금처럼 아이들과 소통하는 따뜻한 멘토로 활동해나가길 기대할게.

함께 해주세요, 걸스 에듀케이션

Bright Girls.
Brighter Future!



지난 12월 3일 홍콩 아시아 월드 엑스포(AWE)에서 열린 아시아 최고의 음악축제 '2014 MAMA(Mnet Asian Music Awards)'의 열기는 그 어느 해보다 뜨거웠습니다. 'Bright Girls, Brighter Future!'라는 슬로건 아래 배움이 필요한 빈곤국가 여아들의 교육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가수와 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인데요. 영화 〈라스트 킹〉으로 오스카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포레스트 휘태커가 영상을 통해 "아시아 최대 음악 시상식 '2014 MAMA'에서 CJ와 유네스코가 여아 교육 후원을 위한 'Bright Girls, Brighter Future!'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을 진심으로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전해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2014 MAMA'를 통한 걸스 에듀케이션 캠페인이 확산되면서 CJ그룹은 CJ E&M의 MWAVE 홈페이지(mama.interest.me/unesco)를 통해 스타 애장품 경매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 취지에 공감한 스타들을 비롯한 셀럽들이 기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애장품을 줄지어 기부한 덕분인데요. 엑소, 소녀시대, 신화 등 200여 명 이상 셀럽들이 모자, 가방, 옷, 운동화 등 400개 이상의 애장품을 기부했으며, 애장품 경매를 통한 모금 전액은 유네스코 걸스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에 전달함으로써 빈곤국가 소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은 전 세계 5,800만여 명. 그중 약 3,000만 명이 여자아이며, 심지어 평생 학교에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것으로 예상되는 여자아이도 1,500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글을 읽지 못하는 인구 약 7억 8,100만 명 중 3분의 2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여성의 교육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말해줍니다. 여아 교육환경 개선은 자신은 물론 미래의 엄마가 되었을 때 그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교육의 선순환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CJ그룹과 유네스코가 걸스 에듀케이션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데요. 셀럽들의 따뜻한 동참과 경매에 참여하는 이들의 착한 마음으로 더 많은 지구 반대편 소녀들에게 배움의 길이 열리길 기대합니다.

WINNER의 애장품 기부 이야기

CJ그룹이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인 스타 애장품 경매에 WINNER의 다섯 멤버 모두가 참여해 노래만큼이나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강승윤은 누구나 알 법한 애장품인 기타를, 남태현은 장지갑, 송민호는 스케이트보드, 이승훈은 반지갑, 김진우는 자전거를 각기 기증했으며, 경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교육 지원이 필요한 소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전달되었습니다.

Bright Girls, Brighter Future!

사랑을 나눠요, 리틀드림 캠페인

함께 한다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리틀드림 캠페인은 지난해 11월 CJ그룹이 시작한 통합 기부 캠페인으로,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입니다. 아이들이 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부를 통해 도움을 주는 것이 주목적인데요. CJ그룹에서 통합적인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되, 계열사마다 사업 특성에 맞는 테마를 정해 지원한다는 점에서 인상적입니다. 조건 없는 기부가 아니라 고객의 관심사와 구매 성향에 맞는 다양한 기부 테마를 제안하는 것이지요.

CJ제일제당은 모금을 통해 소아 당뇨 환아를 위한 의료비 및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고객으로부터 도서벽지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 선물하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CJ올리브네트웍스(올리브영)는 화상이나 흉터 등 안면장애가 있는 소녀들을 위한 수술비 모금을 진행합니다. 치료가 끝나면 고객과 임직원이 아이들을 위한 미용용품을 선물하고 함께 나들이를 떠나기도 합니다. 또, CJ CGV는 시청각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영화감독을 꿈꾸는 아이들을 위한 '나눔의 영화관'과 영화창작교실 '토토의 작업실'을 운영하며, CJ헬로비전은 디지털 문화에 소외된 아동을 위해 디지털 기기 및 디지털 문화교육을 지원합니다.

'펀드레이징'을 아시나요 리틀드림 캠페인의 기부는 펀드레이징(Fundraising)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특별한데요. 펀드레이징이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교육이나 복지 등 사회 전반에 대한 나눔을 위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모금활동을 벌이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레이징의 역사는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후 체코슬로바키아의 8살 소녀가 유니세프에 그림카드 한 장을 보냅니다. 유럽 어린이들을 위한 안정화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요.

소녀의 카드는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곧 크리스마스카드와 연하장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로 팔려나가면서 대대적인 모금 프로그램으로 확산되었지요. 이후 펀드레이징은 우리나라에선 다소 생소하지만, 해외에서는 각 단체와 기업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결합해 하나의 기부 트렌드로 자리 잡았답니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 올여름, 트렌드를 넘어 하나의 붐을 조성한 '아이스 버킷 챌린지(Ice Bucket Challenge)'도 하나의 펀드레이징 사례입니다. 루게릭병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동시에 기부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둔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SNS에 힘입어 캐나다에서만 1,620만 캐나다 달러(한화로 160억여 원)를 모금했는데요. 특히 캐나다 정부는 기부금과 같은 액수를 매칭 펀드로 출연하여 그 의미를 더욱 빛냈습니다.

'RED' 캠페인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2주간에 걸쳐 진행한 'RED' 캠페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애플의 앱 스토어인 아이튠스에 등록한 앱 중 붉은색으로 된 앱을 구매하면, 그 수익금을 에이즈 퇴치 운동을 위한 범세계기금에 전달하는 캠페인이지요. 게임인 경우, 필요한 아이템을 유료로 지불하는 순간 일정금액이 기부되는 식인데요. 애플, 나이키, 컨버스 등과 연계해 다양한 레드(RED) 스페셜 제품을 판매해 금액 일부를 기부함으로써 폭넓은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리틀드림 캠페인에 참여하는 참 쉬운 방법

리틀드림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법!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모두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프라인에서? CJ그룹 각 계열사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기부의사를 밝히세요. 그 즉시 참여 가능하며, 기부 명세는 영수증에 상세히 표시됩니다.

온라인에서? 리틀드림 캠페인 홈페이지(http://donorscamp.org/LittleDream) 내 배너를 클릭한 다음,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해 쉽고 간편하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은 얼마나?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500원 단위부터, 온라인에서는 100원 이상부터 가능해요!

CJ ONE 카드가 있다면? 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기부할 수 있습니다. CJ ONE 통합회원임을 인증하여 잔여 포인트를 확인한 뒤 1포인트를 1원으로 계산하여 기부에 참여하면 됩니다.

※ 리틀드림 캠페인은, 금전적인 기부 참여뿐만 아니라, SNS 응원 댓글을 통해서도 나눔에 참여 가능합니다.

나눔 : 나눔의 시작은 함께하는 것

CJ그룹이 '2014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인적나눔, 물적나눔, 생명나눔, 희망멘토링 중 물적나눔 분야 대통령상을 받으며 모두가 함께 즐기고 나누는 문화를 만드는 기업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는데요.
온라인기부 플랫폼인 CJ도너스캠프는 아동 · 청소년의 꿈을 키우기 위해 CJ그룹 임직원은 물론이고 사회 각계각층 구성원과 함께 나눔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를 통해 두 배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나눔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올해도 CJ도너스캠프와 손을 맞잡고 나눔에 동참한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덕분에 더 많은 아이들의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CJ도너스캠프의 역할은 아이의 꿈에 대한 관심을 불러 모으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나눔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있습니다.
밝고 즐거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CJ도너스캠프와 함께해주세요. 나눔은 함께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많은 CJ 계열사가 함께 나눴어요

8곳 /151,585,896원

리틀드림 캠페인 참여 계열사 숫자 / 모금액

CJ그룹의 각 계열사가 사업 특성에 맞는 모금 방법으로 나눔에 참여한 리틀드림 캠페인. 펀드레이징을 통한 기부문화가 아이들의 꿈을 키워줍니다.

덕분에 더 많은 아이들이 행복했어요

2,741 시간

CJ도너스클럽

CJ그룹의 즐겁고 유쾌한 나눔 문화 확산은 자신과 그 가족에서 시작됩니다.
CJ의 이름으로 나눔을 실천한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한 시간만큼 희망이 커졌습니다.

기부금도 사랑도 2배가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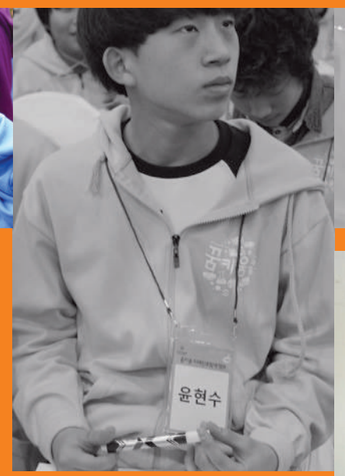
3,959,343,882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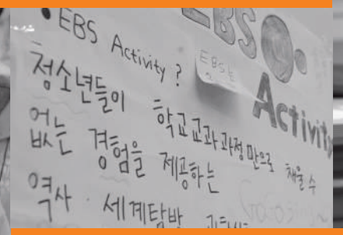
매칭그랜트

기부자가 기부한 금액을 똑같이 기부해 2배로 만드는 CJ의 매칭그랜트.
나눔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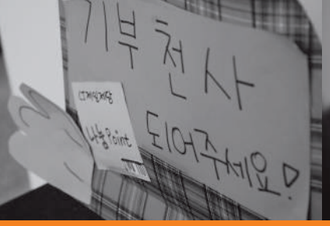
순수한 열정이

피어올랐던 시간





함께일 때 우린 가장 즐겁다



우리의 웃음소리가 들리나요?

마음에 새기고 싶은 이 순간

CJ도너스캠프 기부 참여방법 안내

따뜻한 마음을 가진 Donor(기부자)들의 공간, CJ도너스캠프로 오세요!

step 1 CJ도너스캠프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습니다.
CJ도너스캠프 홈페이지(www.donorscamp.org)를 방문해주세요.

step 2 CJ도너스캠프 홈페이지에서 '기부 참여하기' 메뉴를 클릭한 다음,
'제안서 전체 보기'에 들어가 주세요.

step 3 다양한 제안서 목록이 보이시나요? 그중 희망하시는 '제안서'를 클릭하신 후
'꿈 기부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기부자님의 간단한 정보와 함께
기부하시고자 하는 금액인 '결제금액'을 입력하시고 회원으로 기부하실지,
비회원으로 기부하실지 선택하시면 빠른 기부가 완료됩니다.
(CJ도너스캠프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좀 더 쉽게 다양한 제안서에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step 4 이제 기부자님의 따뜻한 마음에 CJ도너스캠프가 응답할 차례인데요.
기부자님의 기부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CJ도너스캠프가 더해 두 배의
사랑을 전달합니다. 기부한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아이들의
감사편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J도너스캠프 사업보고서 2014 Vol.10

발행일	2015년 2월 1일
발행처	CJ도너스캠프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12 CJ빌딩 (우)100-749
전화번호	1899-0233
홈페이지	www.donorscamp.org
블로그	blog.naver.com/donorscamp05
페이스북	www.facebook.com/cjdonorscamp
기획 · 디자인	꽃피우다
그림	김영미

since 2005
10th
ANNIVERSARY
CJ 도너스캠프